

도토리 하우스



도토리 하우스



01

인사말 02p
○여는 글

04

즐거운 도토리하우스 시간 09p
○도토리하우스 짝꿍 봉사단
○음악으로 힐링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특별한 손님, 도토리 살롱

07

한눈에 보는 도토리하우스 30p

02

도토리하우스팀이 전하는 메시지 03p
○도토리하우스 의사 6글자 인터뷰
○도토리하우스 친구들에게 한마디

05

도토리 형제들의 이야기 19p

08

도토리하우스 만족도 조사 31p

03

도보미 브이로그 06p

06

도토리 뉴스 22p
○안전한 도토리하우스를 위한 대비
○도토리하우스의 기념일
○도토리하우스 형제자매 프로그램
○도토리하우스 가족 프로그램

09

도토리하우스와 나누는 마음 33p

10

도토리하우스를 더 알고 싶다면? 38p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장 채종희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의 두 번째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토리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독립형 중증소아단기의료돌봄센터로, 중증 질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202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개소 이후, 많은 가족들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의미 있는 여정 속에서 센터장님을 비롯해 도토리하우스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은 많은 가족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도토리하우스에서 보내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소중한 이야기와 그 곁에서 힘을 모아 지켜주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지내며,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도토리하우스를 찾아주시는 모든 가족과 이를 함께 지켜가는 직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장 정혜림입니다.

도토리하우스는 아이들의 성장과 가족의 일상을 함께하며 또 한 해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익숙한 가족의 품을 떠나 제2의 집인 도토리하우스에서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많은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며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2024년이 설렘과 긴장의 시간이었다면, 2025년은 도토리하우스가 한층 성숙한 해였으며, 다시 찾아온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도토리하우스에서 보낸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질환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보다 나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토리하우스팀이 전하는 메시지

도토리하우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입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도토리하우스팀을 소개합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도토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선물하는 도토리 선생님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도토리하우스 의사 6글자 인터뷰

도토리하우스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교수님들이 도토리하우스를 떠올리며 6글자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도토리하우스에 대한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정혜림 교수님

그럼에도 우린

이전에 없던 형태의 센터이다 보니 여러 우려곡절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도토리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정하 교수님

천사들의 쉼터

도토리 아이들이 늘 천사 같은 얼굴로 도토리하우스에 와주기 때문에 도토리하우스는 천사들의 쉼터입니다.



김혜영 교수님

제2의 천정집

도토리 가족들의 경조사를 함께 하는 도토리하우스가 제2의 천정집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이지원 교수님

따뜻이 쉬는 집

도토리하우스는 아이와 가족이 돌봄 속에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따뜻한 마음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김민지 교수님

따뜻한 안식처

따뜻하고 전문적인 돌봄 속에서 아이들은 편안히 머물고, 가족은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토리하우스 친구들에게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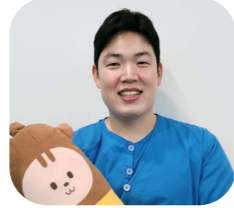
수간호사

간호팀(20명)



류민주 선생님

다시 만날 때마다 더욱 예쁘게 성장하는 도토리 친구들! 사랑해요~♡



박주석 선생님

도토리하우스 친구들이 잘 부탁해 (짱긔)



이희경 선생님

도토리에 또 놀러와!♡



정미경 선생님

언제나 환영해~



신미애 선생님

도토리 친구들이 사랑해



이동혁 선생님

도토리하우스에 있는 동안 재미있게 놀자



차희정 선생님

도토리 친구들이 또 보고싶어



유희정 선생님

언제나 행복해~



황미진 선생님

도토리 친구들 사랑해요



장경운 선생님

애들이 자주 놀러와줘! 보고싶어~



최선민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유다정 선생님

도토리하우스에 자주 놀러와~!!



김아람 선생님

오늘도 반가워 도토리에서 재밌게 놀자!



윤영빈 선생님

너희들을 보면 항상 미소가 지어져!



박지아 선생님

빛나는 너희 곁을 지킬 수 있어 행운이야



안하영 선생님

안전하게 돌봐줄게!



이가은 선생님

용기내서 와줘서 고마워! 너 멋지다!



김현주 선생님

항상 곁에 있을게~ 또 만나자!



이경애 선생님

도토리 친구들이 축복해!♡



원미현 선생님

도토리하우스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사회복지사(2명)

행정직원



박영서 선생님

자꾸자꾸 보고싶은 도토리 친구들! 우리 자주 보자~~



김채은 선생님

너희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되었길 바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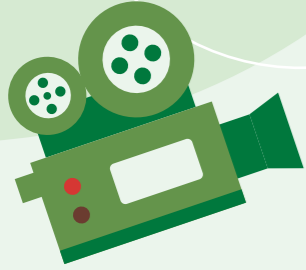


최진선 선생님

도토리하우스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도토리하우스 간호팀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도토리 친구들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24시간 동분서주한 도토리하우스 간호팀! 간호팀 선생님들의 하루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나는 도토리하우스의 돌봄을 책임지는 간호사 [도보미]야!



(1) 체위 변경 :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고, 가래도 쌓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토리하우스에서는 아이들의 자세를 3-4시간마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자세를 바꾸면,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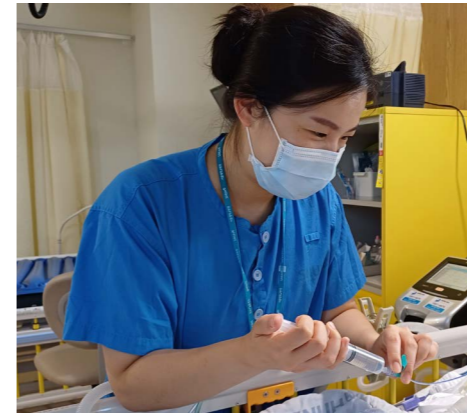
(2) 호흡기 관리 :

침을 스스로 삼키기 어렵거나 가래가 나오는 아이들은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은 수시로 침과 가래를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석션 할 때는 조금 힘들지만, 그 후에는 아이들이 훨씬 시원해하고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호흡을 원활히 하기 위해 네블라이저를 사용하거나 가습을 두드려주는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기도 해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요!



(3) 피딩 & 투약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도토리하우스에서는 아이들의 상태에 맞춰 가급적 집에서와 같이 피딩과 투약을 챙겨주고 있어요. 밥과 약을 정확하게 투여하는 것은 아이들이 집이 아닌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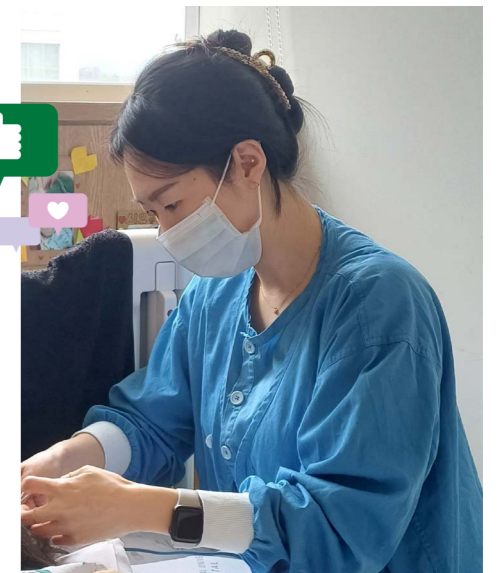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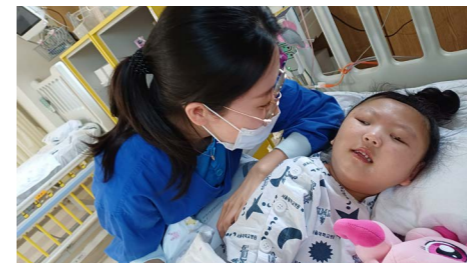
(4) 목욕

도토리하우스에서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주고 있어요.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피부 상태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덤으로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통목욕 후에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껴 수면의 질도 좋아진답니다. 집에서 통목욕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도토리하우스 목욕실에서 통목욕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도토리하우스는 목욕 맛집이에요!

(5) 아이돌봄

- 기저기 교환, 소/대변 확인, 피부 관찰

아이들은 기저귀를 자주 체크해 주어야 해요. 소변과 대변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피부 상태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기저귀 발진뿐만 아니라 목 주변, 사타구니 등 피부 문제는 없는지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6) 아이 정보 인계

교대로 아이들을 돌보는 병동의 특성상 아이의 인계는 매우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예요.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지 등 아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돌봄을 위해서 도토리하우스 의료진 선생님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답니다.



(7) 침상 정리

간호 보조 선생님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깨끗한 린넨으로 침상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베개, 이불 등을 꼼꼼히 정리해 주신답니다.



04

즐거운 도토리하우스 시간

1) 도토리하우스 짝꿍 봉사단

도토리하우스의 자랑! 멋진 짝꿍 봉사단을 소개합니다. 2025년에는 4기와 5기의 짝꿍들이 도토리 아이들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2025년에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관문을 거치고 무사히 활동을 수료하였어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준 4-5기 짝꿍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 짝꿍 필수 교육

완전한 짝꿍이 되기 위해서는 짝꿍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2025년에는 4기와 5기 짝꿍 선생님들이 '전체 오리엔테이션, 집합교육, CPR 교육'까지 여러 필수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멋지게 짝꿍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 짝꿍 중간교육

짝꿍 활동의 중반부에 오면 초심을 되찾고 다시금 짝꿍 활동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중간교육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3) 짝꿍 수료식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4기, 5기 짝꿍들은 무사히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즐거운 도토리하우스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4) 짝꿍 스토리



도토리 정리의 왕

짝꿍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깔끔하게 정리까지 도와주는 은별이! 놀고 난 자리는 깨끗하게~ 웃는 얼굴로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치는 은별이와 짝꿍 선생님의 즐거운 순간들을 포착해 보았습니다.



노은별

도토리 재롱둥이

도토리에 처음 온 날부터 방긋 방긋 웃음을 지었던 우리 재롱둥이를 소개합니다. 피아노 소리를 제일 좋아하던 우리 우주는 애교 섞인 웃음과 하트로 도토리 선생님들의 애간장을 모두 녹였습니다!



홍우주

박서인

도토리 보스 베이비

얼굴은 베이비, 포즈는 보스! 근엄한 표정으로 짝꿍들을 사로잡은 보스 베이비를 소개합니다. 근엄하면서도 깜찍한 모습으로 짝꿍 선생님들의 마음을 녹여요.



유서준

도토리 미남

시원하게 웃는 미소가 돋보이는 우리 서준이는 짝꿍들의 칭찬이 너무 듣기 좋은가 봐요. '잘생긴 유서준~!'이라고 부르면 깔깔 웃던 서준이와 짝꿍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합니다.



이예설

도토리 백설공주

백옥 같은 피부의 주인공 예설이예요 짝꿍과 독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짝꿍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도 합니다. 예설이의 부드러운 볼을 쓰다듬어 주면 예설이도, 짝꿍도 서로에게 완전한 힐링 시간 완성!



(5) 장기짜꿍 소감

도토리하우스 친구들과 단짝이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는 장기 짜꿍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장지나 짜꿍

활동 기간 :
2024.08 ~ 현재

주말이면 나는 조금은 다른 세상으로 향한다. 평일의 일상과는 결이 다른,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온기가 흐르는 공간. 종종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머무는 도토리하우스에서 나는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만난다. 처음 도토리하우스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단순히 '주말에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던 과정에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준 소중한 인연이었다고...

봉사를 시작하기 전, 나는 오늘 만나게 될 아이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주의할 점,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까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동화책과 장난감을 고르는 시간은 매주 반복되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떤 책을 좋아할까, 어떤 장난감에 웃어줄까를 고민하며 활동 바구니를 채우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의 마음은 아이에게 가 닿아 있다.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은 늘 설렘과 긴장이 함께한다. 낯선 사람인 나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금세 마음을 열고

미소를 보여주지만, 또 어떤 아이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경계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다가가려 한다.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나에게도 특별하다. 같은 이야기를 읽더라도 아이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색을 띤다. 어느 날, 동화책 속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는 장면에서 "우리 OO이도 출발!"이라고 외치며 달리는 시늉을 하자,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도 가고 싶어... 나도 데리고 가줘."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건네며 아이의 손을 잡았더니, 아이는 피식 웃었다. '어디론가 떠난다'는 상상은 얼마나 큰 의미일까. 그날 나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상상을 함께 걷는 동행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날에는 의료적 처치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이를 만났다. 내가 꺼낸 공룡 피규어를 보더니,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뻗었다. 우리는 공룡과 인사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 함께 놀았다. 활동 시간이 끝나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아이가 조그만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온기는 오래도록 손바닥에 남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접촉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이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손가락이 떨리고, 호흡이 달라지는 그 작은 변화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벽찬 감동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아이들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반응을 건네고, 나는 그 신호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짜꿍 봉사단을 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이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 그 단순한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잠시나마 작은 심포가 된다.

내가 짜꿍 봉사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그 순간들이다. 아이의 웃음, 짧은 교감, 손을 잡아주던 온기, 그리고 헤어질 때 건네는 아쉬운 눈 인사까지...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인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돌아온다는 생각이 든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무뎠을 때, 이곳에서의 기억은 나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원동력은 '다시 만나게 될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다. 매주 새로운 아이를 만난다는 것은 낯설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다. 오늘은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까. 그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그 기대감이 나를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만든다. 그리고 매번 느끼지만, 아이들은 내가 준비해 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남겨준다.

아이를 병원에 맡기고 돌아서는 부모님의 마음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외롭지 않을지,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나는 전하고 싶다. 도토리하우스에는 함께 웃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아이가 온전히 '아이'로 있을 수 있도록, 모두가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꼭 말해주고 싶다. 너희가 보여주는 작은 웃음과 눈빛,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도토리하우스에서의 봉사는 나에게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준 경험이다. '무엇을 해주었는가'보다 '어떻게 함께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을 나는 이곳에서 배웠다. 앞으로도 이 따뜻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 매주 새로운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와의 시간을 온전히 채워가며,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



안우현 짝꿍

활동 기간 :
2025.02 ~ 현재

도토리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2025년도 도토리 짝꿍 봉사단 4기부터 봉사를 해온 안우현입니다. 6기까지 연장하며 활동을 이어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잊지 못하는 순간을 짧게나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도토리 짝꿍 봉사단으로 봉사를 시작할 때는 긴 투병 생활을 함께하는 가정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아이들에게 짧게라도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동안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에 비해 너무나 작고 어린 아이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아이의 정보를 인계 받을 때까지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으나, 제 팔뚝만 한 작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조심스럽고 소중한 마음으로 울컥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생애 처음으로 작은 아이를 안아 보았을 때,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벼웠지만 생명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생채기 하나라도 나지 않게 조심하려는 마음은 또 얼마나 진중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 안아주었던 다음날, 꽤 아팠던 팔은 기쁜 근육통이자 성장통으로 여겨졌고,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들을 안고 계실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도토리하우스의 짝꿍은 단순히 아이를 즐겁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마주하는 아이들을 지지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하는, 큰 책임을 가진 이들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고 계실 보호자분들과, 곁에 있는 형제자매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도토리하우스에 계시는 의료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박채연 짝꿍

활동 기간 :
2025.02 ~ 현재

안녕하세요, 저는 도토리하우스에서 4기부터 6기까지 어느덧 세 번째 기수를 함께하고 있는 짝꿍 박채연입니다.

제가 처음 도토리하우스를 알게 된 계기는 우연히 접한 도토리 가족의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물론 마음에 남았지만, 무엇보다 '도토리 형제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철이 들 수밖에 없고, 포기하는 것도 많았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잠시나마 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짝꿍 활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든 순간이 조심스러웠고, 작은 변화에도 놀라며 '잘하고 있는 걸까'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도토리에 가는 날이 '설렘'보다는 '해야 하니까 가는 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긴장감이 오히려 아이들과의 거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환점은 4기 중간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기다리고 맞춰가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주어진 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못할 순간들도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뽀로로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핑크퐁



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거의 반응이 없던 아이가 아주 미세하게 웃어주었을 때, 작은 손을 뻗어 제게 다가오던 순간, 그리고 울던 아이가 제 손길에 점차 안정을 되찾고 편안해지던 순간까지. 이런 순간들이 쌓이며 어느새 저는 '해야 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도토리에 오고 있었습니다.

짝꿍 활동을 이어오며 느낀 것은, 이 시간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표정과 손짓, 작은 반응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을 아이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토리하우스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과 실제로 함께하는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지만, 그 먼 길을 계속 오게 만들고 6기까지 연장하게 된 것은 결국 이런 순간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도토리하우스와 항상 현장에서 함께해주시는 의료진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준 도토리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토리하우스에서의 시간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그 순간들이 모여 각자의 일상에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 음악으로 힐링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도토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 바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2025년에도 도토리하우스 아이들에게 멋진 멜로디를 선물해 준 음악치료사 선생님들이에요. 한 해 동안 도토리하우스에 놀러 온 아이들에게 여러 감각에 맞게 음악 활동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1) 유주아

도토리하우스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주아가 음악을 통해 도토리하우스에 서서히 스며들었던 순간이예요. 눈물 대신 웃음이 사르르 났던 우리의 추억. 비로소 음악으로 하나 된 순간이었습니다.



(2) 이윤찬

코코몽이 제일 좋은 윤찬이를 위해 맞춤 음악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냉장고 나라 속 여러 캐릭터의 특징을 되새기며 어울리는 멜로디를 함께했던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윤찬이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었답니다.

(3) 우재민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멋진 연주를 해냈던 재민이예요. 무아지경으로 핸드벨 연주를 선보인 재민이의 소중한 선물을 간직하기 위해 악보를 만들어주셨어요. 도토리 작곡가 탄생~!



(4) 임선우

흠쩍 자란 모습으로 놀러 왔던 선우 공주님이에요. 아기 시절 선우는 잊어라! 멋진 언니가 된 선우는 오랜만의 음악치료 시간에 집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음악치료사 선생님과의 강렬한 눈맞춤!





3) 특별한 손님, 도토리 살롱

도토리 살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토리하우스에는 도토리 친구들에게만 열리는 도토리 살롱이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와중에도 틈틈이 아이들에게 멋진 헤어스타일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는 멋진 도토리 간호사예요!

도토리하우스 금손 디자이너



멋진 도토리 살롱 손님들

덕분에 예쁜 모습으로 짝꿍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05

도토리 형제들의 이야기

도토리하우스와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은 도토리 형제의 그림 일기를 소개합니다!

시준이의 그림 일기

날짜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날씨 ☀️ 다소 맑음



시준이는 도토리하우스에 가고 나는 엄마, 아빠와 차를 타고 속초에 있는 리조트로 갔다.

속초에 도착해서 파도가 치는 바다도 보고 커다란 관람차도 탔다. 바닷가에서는 신나게 모래 그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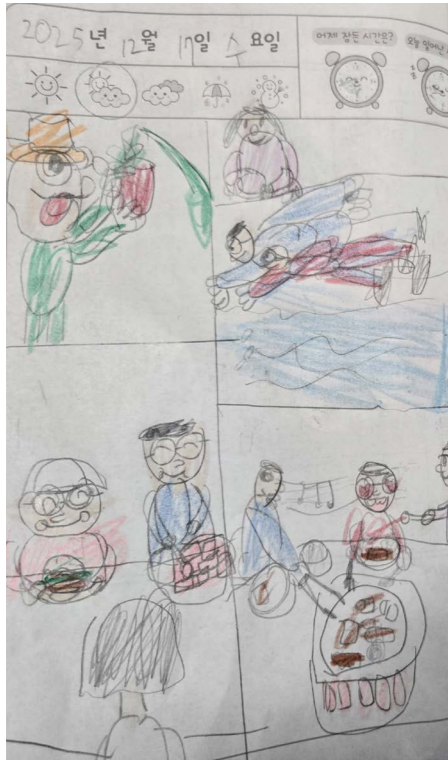
그렸다. 도토리하우스에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시준이는 짝꿍 형과 책을 읽고 있다.

저녁에는 엄마, 아빠랑 라면도 먹었다. 오랜만에 여행을 와서 너무 즐거운 하루다.

시준이의 그림 일기

날짜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날씨 ☀️ 다소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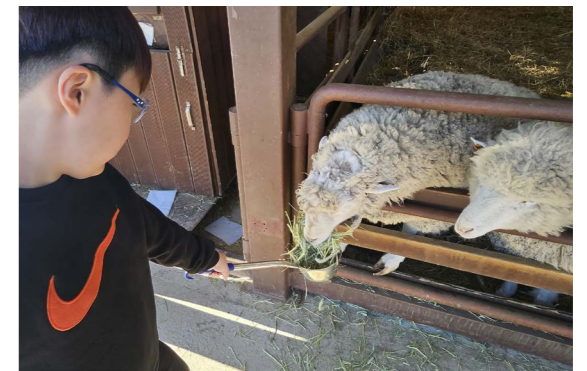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와 딸기 농장에 갔다. 맛있는 딸기를 엄청 많이 땀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워터파크에 갔다. 재밌는 물놀이를 해서 좋았다. 아빠랑 누가 더 빠른지
 수영 시합도 했다. 내가 조금 더 빠르다. 수영을 다 끝내고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재밌었다. 시원도 잘 놀고 있었지? 도토리하우스 사진을 보니 시원도
 잘 놀고 있다.



시준이의 그림 일기

날짜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날씨 ☀️ 다소 맑음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식 뷔페를 먹었다. 도토리하우스에서 시원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맛있게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겼다. 오늘은 평창 양떼 목장을 가기로 했다.
 양떼 목장에 가서 타조를 봤다. 타조가 배부르지 않게 먹이를 적당히 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시원을 데리러 도토리하우스로 갔다.
 우리 가족의 여행 끝! 내년에도 또 가고 싶다!

시원이네 가족에게 멋진 여행을
 선물해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감사합니다~~!



도토리 뉴스

1) 안전한 도토리하우스를 위한 대비

(1) CPR 모의훈련

도토리하우스는 2025년에도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CPR 모의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도토리하우스의 모든 의료진이 참석하여 총 6회의 CPR 대응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도토리 친구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2)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운영 프로토콜 발간

2025년에는 센터 개소 이후 도토리하우스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여 중증소아를 위한 센터를 계획하거나 유사한 돌봄을 시행하고 계신 분들과 이를 공유하고자 프로토콜을 발간하였습니다! 1권은 단기의료돌봄센터에 입원하는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2권은 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는데요~! 이번 2가지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중증질환이 있는 어린이들의 단기의료돌봄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정리할 계획이니 기대해 주세요!



2) 도토리하우스의 기념일

도토리하우스와 함께했던 더욱 특별했던 기념일, 도토리하우스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린이날



도토리 친구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그날!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도토리하우스 짝꿍 공장이 가동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포장에 정성을 녹여서 선물 완성! 짝꿍 선생님들의 마음까지 잘 전달되었겠죠~? 여름에 담요로도 쓰이고, 샤워 후 타월로도 쓰일 수 있는 비치타월과 미니 선풍기 그리고 도토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컬러링 북, 색연필까지! 도토리 아이들의 즐거운 여름을 위해 준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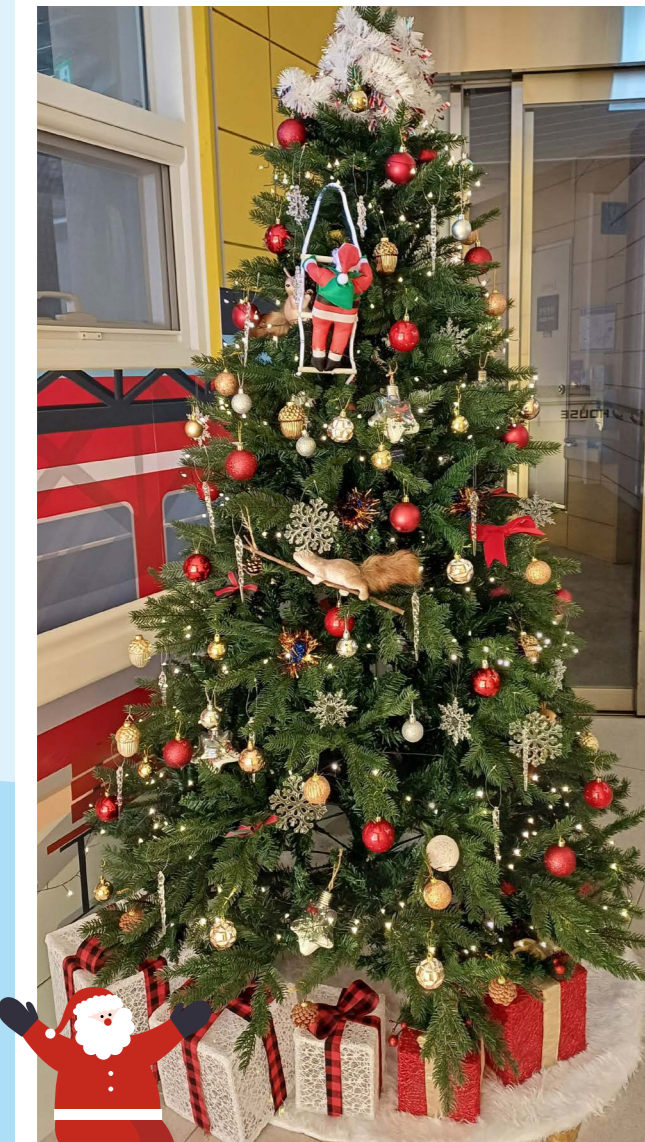
도토리하우스 개소 2주년



도토리 모양의 귀여운 마들렌을 선물했답니다!



도토리하우스가 문을 연 지 벌써 2주년을 맞이했어요~! 매년 많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한 도토리하우스입니다. 도토리하우스 2주년을 기념하여 도토리하우스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병원 유관부서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도토리 두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아이들에게도 도토리 전용 바디 필로우를 선물했답니다!



두근두근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도토리하우스도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입구에 트리도 설치하고요~
 짝꿍, 음악치료사 선생님들과 캐롤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물도 빠질 수 없지요! 우리 도토리 친구들의 겨울을 위해 포근한 담요를 준비했어요! 우리 모두 포근하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3) 도토리하우스 형제자매 프로그램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8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19건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었던 우리 도토리 형제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2025년에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1월

라탄 공예 프로그램



2월

떡 컵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



3월

글라스 아트 무드등 만들기 프로그램



5월

도토리하우스 그림 대회



6월

악기 체험 프로그램



9월

미니어처 추석 한상 만들기 프로그램



10월

할로윈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



7월

비즈공예 프로그램



8월

리셔츠 만들기 프로그램



11월

떡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



4) 도토리하우스 가족 프로그램

2025년에는 도토리하우스 가족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남산 광장을 함께 걷고, 힐링 가득한 디퓨저를 만들며, 가족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비가 와도 웃음은 끊이지 않았던 그 순간들, 사진 속에서 다시 만나볼까요?

4월

넥슨과 함께하는 2025 푸르메 워크



2025년 4월에는 도토리하우스 가족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외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산 백범 광장에서 처음으로 만난 우리 도토리 가족들!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였지만 도토리하우스의 첫 나들이였던 만큼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함께 걷고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만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준비한 코스를 모두 완주한 우리 도토리 친구들과 형제들은 멋진 메달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

11월

보호자 프로그램_디퓨저 만들기



2025년 11월에는 보호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도토리하우스에서 형제들이 떡 비누를 만드는 동안 보호자분들은 도토리하우스 근처 카페에서 힐링 디퓨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어색함도 잠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힐링 가득 디퓨저 만들기 성공!

12월

뮤지컬 산타와 빈양말 관람



2025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도토리 가족들이 모두 모여 가족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관객 참여형 공연이었던 만큼 도토리 가족들의 참여도 빛났는데요~! 불빛도 반짝! 소리도 쿵쿵! 울리는 공연장에 함께 방문한 도토리 친구들도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경험을 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07

한눈에 보는 도토리하우스

2025년 도토리하우스의 총 입원 건수는 657건입니다. 도토리하우스 가족들의 소중한 일상에 함께할 수 있었기에 더욱 따뜻한 한 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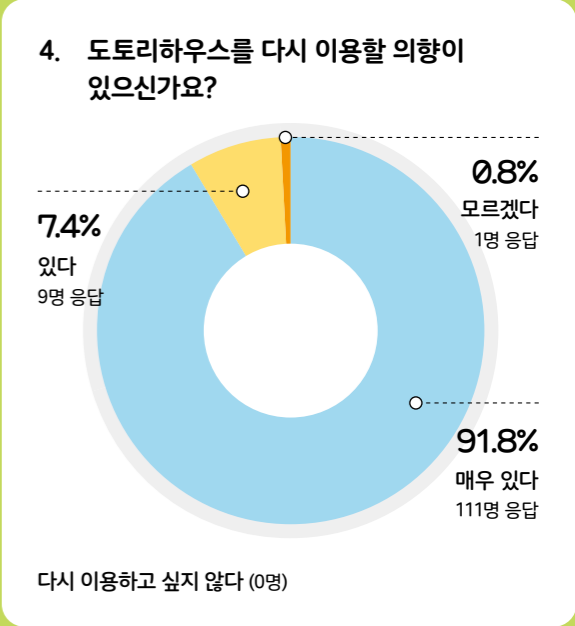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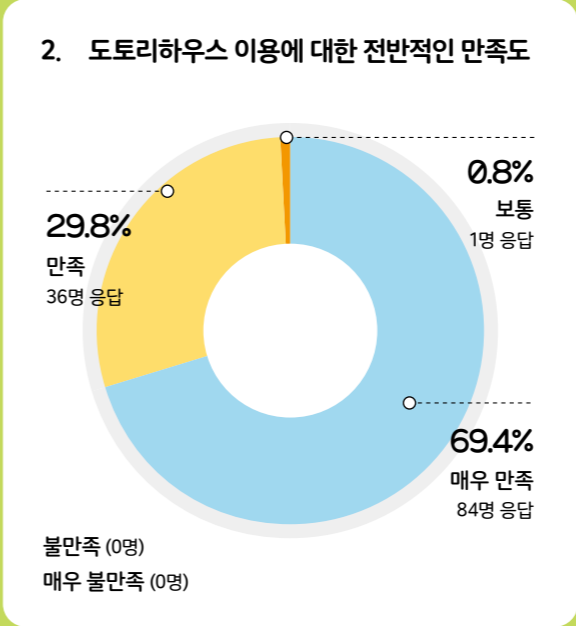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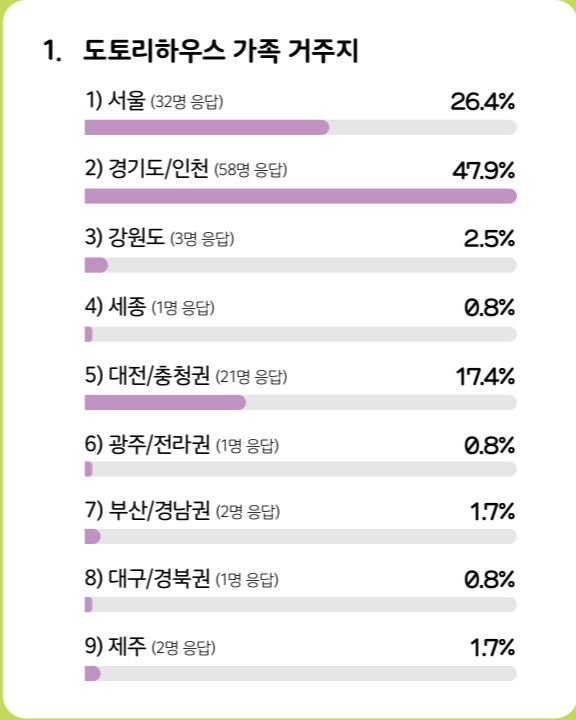


도토리하우스 사전 외래 건수	191건
짜깁 봉사단 놀이 활동 연결 건수	3,974건
음악치료 프로그램 건수	633건
형제자매 프로그램 건수	19건 (참여인원 : 108명)
가족 프로그램 건수	3건 (참여인원 : 96명)


08

도토리하우스 만족도 조사


(총 121명 응답)




5. 도토리하우스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주관식)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아이를 케어해 주신다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내가 부모인데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에 아이를 맡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맡겨보니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또 맡길 수 있었던 건 신뢰였어요. 저희가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건 도토리하우스에 몸담고 계신 선생님들과 봉사자님들 덕분이었어요. 두 손 모아 감사합니다.


 도토리하우스를 이용하며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었고, 양육자로서 잠시 쉼을 가지며 앞으로 아이 양육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쉼표가 필요했던 순간, 도토리하우스 덕분에 얻은 쉼은 제게 선물 같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치고 살았던 저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간병으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더욱 단단히 만들며 회복하는 시간을 처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도 맡길 수 없었던 아이를 잘 돌봐주시고 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너무 만족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심한 배려와 돌봄 덕에 저희 집도 어느새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중증 아이들을 사명감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하우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직원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의 수고로 중증 아이는 재밌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은 잠시나마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토리하우스 가족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2026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도토리하우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9

도토리하우스와 나누는 마음 (2025.02~2026.02)

2025년에도 어김없이 소중한 마음을 도토리하우스에 나눠주신 후원자님들을 소개합니다.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관심이 도토리하우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해주시는 마음은 도토리하우스를 방문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단체

구분	후원자명	기부금액(원)	구분	후원자명	기부금액(원)
단체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7,500,000	단체	씨미(SEAME)	5,000,000
단체	(재)원불교 서울교구 원남교당	7,000,000	단체	안동동물의료센터	150,000
단체	(주)해방세대부	10,000,000	단체	옹달샘중증아이케어카페	1,000,000
단체	(주)넥슨코리아	173,137,764	단체	주식회사 케이자와	12,000,000
단체	재단법인 넥슨재단	100,000,000	단체	주식회사 하이브	100,000,000

2) 개인

구분	후원자명	기부금액(원)	구분	후원자명	기부금액(원)
개인	강석오	5,000,000	개인	김가현	50,000
개인	고민지	130,000	개인	김강인	130,000
개인	공해정	120,000	개인	김강현	550,000
개인	구수민	100,000	개인	김고은	120,000
개인	구자랑	1,000,000	개인	김동국	130,000
개인	권도연	50,000	개인	김미량	260,000
개인	권미라	300,000	개인	김민정	210,000
개인	권지현	100,000	개인	김보연	1,000,000
개인	권혜주	240,000	개인	김상우	20,000
개인	기문영	25,000	개인	김상준	650,000

구분	후원자명	기부금액(원)
개인	김서민	1,000,000
개인	김선경	1,000,000
개인	김성건	100,000
개인	김소희	210,000
개인	김완일	1,270,000
개인	김우영	10,000
개인	김유신	120,000
개인	김은하	600,000
개인	김인송	120,000
개인	김재윤	500,000
개인	김정근	130,000
개인	김정숙	260,000
개인	김정현	50,000
개인	김주한	1,600,000
개인	김중환	250,000
개인	김지영	6,500,000
개인	김지은	650,000
개인	김지희	80,000
개인	김창응	1,000,000
개인	김채연	50,000
개인	김채은	65,000
개인	김태린	1,000,000
개인	김한석	800,000
개인	김혜원	195,000
개인	김혜진	100,000
개인	김회석	19,100,000
개인	남경석	390,000
개인	남우희	35,000

구분	후원자명	기부금액(원)
개인	남주영	1,300,000
개인	남현정	360,000
개인	노성단	20,000,000
개인	노지윤	120,000
개인	노지은	360,000
개인	문소현	130,000
개인	문이지	360,000
개인	민동환	650,000
개인	민형기	650,000
개인	박성인	570,000
개인	박영서	260,000
개인	박영신	240,000
개인	박예슬	130,000
개인	박준신	360,000
개인	박준영	50,000,000
개인	박지나	120,000
개인	박혜림	200,000
개인	백소영	130,000
개인	백은주	120,000
개인	변승무	240,000
개인	석민영	140,000
개인	송길정	100,000
개인	송승하	330,000
개인	송연정	100,000
개인	송지연	100,000
개인	송지원	130,000
개인	송청송	60,000
개인	송한상	2,000,000

구분	후원자명	기부금액(원)
개인	신은혜	130,000
개인	신주원	100,000
개인	안규리	60,000
개인	안유주	180,000
개인	안지은	60,000
개인	양소윤	60,000
개인	염지선	130,000
개인	오재우	390,000
개인	오지영	330,000
개인	우민경	390,000
개인	우수정	130,000
개인	원미현	920,000
개인	원윤경	210,000
개인	유단살림	3,000,000
개인	유상영	360,000
개인	유선화	130,000
개인	유영은	550,000
개인	윤보한	80,000
개인	윤주리	260,000
개인	윤지선	260,000
개인	윤지호	100,000
개인	윤창윤	300,000
개인	이경채	1,000,000
개인	이민아	1,200,000
개인	이수연	130,000
개인	이애경	260,000
개인	이예서	120,000
개인	이용철	50,000

구분	후원자명	기부금액(원)
개인	이우성	500,000
개인	이윤경	90,000
개인	이은정	100,000
개인	이은진	1,000,000
개인	이정민	150,000
개인	이정원	1,300,000
개인	이주연	50,000
개인	이주희	120,000
개인	이진수	300,000
개인	이진희	120,000
개인	이창우	100,000
개인	이치은	260,000
개인	이현석	130,000
개인	이호식	100,000
개인	이호중	2,000,000
개인	임우현	650,000
개인	장연지	50,000
개인	장철웅	100,000
개인	전셋별	100,000
개인	전예은	650,000
개인	전혜연	240,000
개인	정민경	100,000
개인	정선진	330,000
개인	정소연	600,000
개인	정소희	30,000
개인	정송민	240,000
개인	정순호	30,000
개인	정양선	260,000

10

도토리하우스를 더 알고 싶다면?

🌰
YouTube 서울대병원TV 채널에 소개된 도토리하우스 영상을 QR 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서울대병원TV 도토리하우스 QR 코드



🌰
도토리하우스의 다양한 소식들은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도토리하우스 인스타그램 QR 코드



🌰
도토리하우스 가족들과 함께 해주실 분들은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동참해 주세요!



도토리하우스 후원 QR 코드



발행연도

2026년

발행인

정혜림

발행처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

편집디자인/인쇄

디자인위드

www.designwith.co.kr